

# 광주 경제계, 민간·군 공항 무안통합 이전 한목소리

### 광주상의, 경제계·기업인 100여명 참석 공동성명 발표 한상원 회장 “이전지 미래도시·군공항 부지 일자리 창출”

광주지역 경제계가 광주 민간·군 공항 무안통합 이전에 한목소리를 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3일 “광주지역 경제계 및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통합 이전’을 촉구하는 광주지역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 발표행사는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인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통합 이전과 관련해 광주상의를 비롯한 19개 지역 경제계 및 기업인들이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음과 뜻을 같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무안국제공항은 전국 5위 규모의 항공과 이용객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2025년부터는 KTX가 정차하는 국내 유일의

국제공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의 반대와 지자체간 갈등, 정부의 추진 의지 부족으로 10여년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무안국제공항이 광주와 전남을 대표하는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통합 이전”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회장은 “이전지역은 항공정비산업 활성화, 항공물류 허브 육성, 인근 배후도시 조성 등을 통해 미래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광주 군공항 부지에는 미래산업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의 젊은 세대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역 내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진 공동성명서 발표에서는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은 광주 민간·군



광주상공회의소는 23일 대회의실에서 지역 경제계 및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통합 이전’을 촉구하는 광주지역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상공회의소 제공>

공항 통합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정부는 광주 민간·군 공항의 통합 이전에 필요한 재정지원, 관련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정부와 지자체는 이전부지에 항공정비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광주공항 종전부지에 미래산업 및 글로벌기업 유치 등의 활동에 노력

해줄 것 ▲국회와 지역 의회 등 정치권은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법적 제도 정비, 갈등해소 방안 등을 마련해 줄 것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는 무안통합공항이 호남권의 중추 공항으로 역할을 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 등 총 5가지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 발표는 광주상공회의소를 포함해 (사)광주경영자총협회, (재)광주경제진흥생일자리재단, 광주시관광공사, 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사)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재)광주테크노파크,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 대한건설협회광주시회, 대한주택건설

협회 광주전남도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광주전남지회, (사)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광기술원, (사)한국금형산업진흥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사)호남제주철연협회, (사)광주전남기술경영진흥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호남지회 등 총 19개 기관이 참여했다. /임채만 기자

## LH ‘따뜻한 주거복지 포인트 시범사업’ 협약 체결

### 장성군 등 협력...입주민 프로그램 참여 포인트 관리비 차감 사용

LH 광주전남본부는 23일 “장성군, 장성 새마을금고와 ‘따뜻한 주거복지 포인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성군과 LH는 ‘민들레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LH와 새마을금고는 주거

복지포인트 재원을 매칭해 마련한다.

LH 작은도서관은 단순 독서공간에서 벗어나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강좌, 교류행사,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뜻한 주거복지포인트 시범사업”은 입주민이 작은도서관을 방문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포인트를 지급하고 매월 적립된 포인트를 관리비 차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LH가 공동체 활성화와 임대주택 내 고령·독거세대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추진 됐다. LH는 장성, 나주, 광주남구 등 작은도서관 3곳에서 3개월간(8월-10월) 시범사업 운영을 하고 피드백을 거

쳐내던 사업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지역민을 위한 따뜻한 주거복지포인트 사업을 장성에서 최초로 시행하게 돼 LH와 새마을금고에 감사한 마음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수미 LH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에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 지역중기 특별자금 지원 기한 1년 연장

### 韓銀, 내년 7월말까지...경영여건 어려움 감안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23일 “7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자금 지원의 기한을 2025년 7월말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유보분을 활용해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4천900억원 규모의 한시 특별자금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4천279억원)과는 별도의 추가 지원이다.

최근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연체율 상승, 폐업 확대 등 경영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동 지원 조치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특별자금 지원기간(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을 종전 2024년 2월1일-2024년 7월31일에서 2025년 7월31일로 연장하며 동 기간 내 취급된 1년 이내 만기 대출에 대해 2026년 8월31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저리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는 선별적 지원 강화를 위해 저신용 등급(6-10등급, 무등급, S OHO 포함)의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운용한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기한 연장 및 지원대상 조정으로 지역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자금 사정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 “광주신세계서 심신 안정 취하세요”

### 뷰티케어 서비스·제스파 안마의자 대폭 할인

☞광주신세계가 뜨거운 햇볕과 습한 날씨에 지친 고객들을 위해 뷰티케어 콘텐츠와 안마의자 대폭 할인 행사를 마련한다.

먼저 본관 2층 ‘시세이도’는 오는 25일까지 사전 예약시 무료 핸드마사지를 제공하며 매장 방문 고객 중 신규 회

원가입시 2만5천원 상당의 LX소프너 샘플을 증정한다.

‘시슬리 코스메틱’은 피부 진단 서비스를 준비했다. 오는 28일까지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피부와 모발 상태에 맞는 제품 2종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아베다’에서는 전용 카메라를 이용



해 피부와 모발 상태를 점검하고 트리트먼트를 추천해준다. <사진>

‘SK-II’는 피부 측정 서비스를 펼친다. 매직스캔 기기를 활용해 정확한 피부 나이 측정 후 가장 맞는 제품을 제안

한다. 서비스를 받고 싶은 고객은 신세계 백화점 앱 메인 화면의 ‘줄서기 예약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본관 지하 1층에서는 ‘제스파’ 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 리브레트 안마의자는 190도 모션 프레임으로 더 편안한 안마를 경험할 수 있다. 정가 600만원 제품을 388만원에 구매 가능하며 슬립한 외형을 가진 싱글 모듈 안마의자 르헤브 역시 정가 450만원에서 129만원으로 할인 판매한다. /정은슬 기자

에너지 절약 및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 ▶ 여름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여름철 26도, 겨울철 20도)
- ▶ 불필요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갖는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사·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고 인정이 넘치는  
녹차골 보성향토시장**

◎ 장이 서는 날 ◎  
2, 7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보성군** 문의 : 062)650-2099